

#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발상으로 희망을 꿈꾸는 (주)엘더스 T&L

## 길게 뻗은 쇧덩어리

사람들은 철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정한 간격과 철저한 평행을 유지한 채 곧게 뻗어 있는 두 개의 레일을 떠올린다. 육중한 기차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위를 오고 가며, 그들을 지탱하는 두 줄의 쇧덩어리는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들의 몫을 해낸다.

레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레일은 그냥 쪽 뻗은 길다란 쇧덩어리가 아니다.

레일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다. 그것은 좌우로 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래위로 휘기도 한다. 때로는 균열로 인한 레일의 손상으로 열차 운행을 한동안 지연시킨다.

비가 억수같이 오던 어느 날. 문씨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휘어진 레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교외를 가로지르던 철도는 비가 내리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뒤

틀기 시작했다. 노후된

쇧덩어리가 휘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결국 레일의 수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긴급하게 호출이 들어왔다. 레일이 휘면 열

차 승객들의 승차감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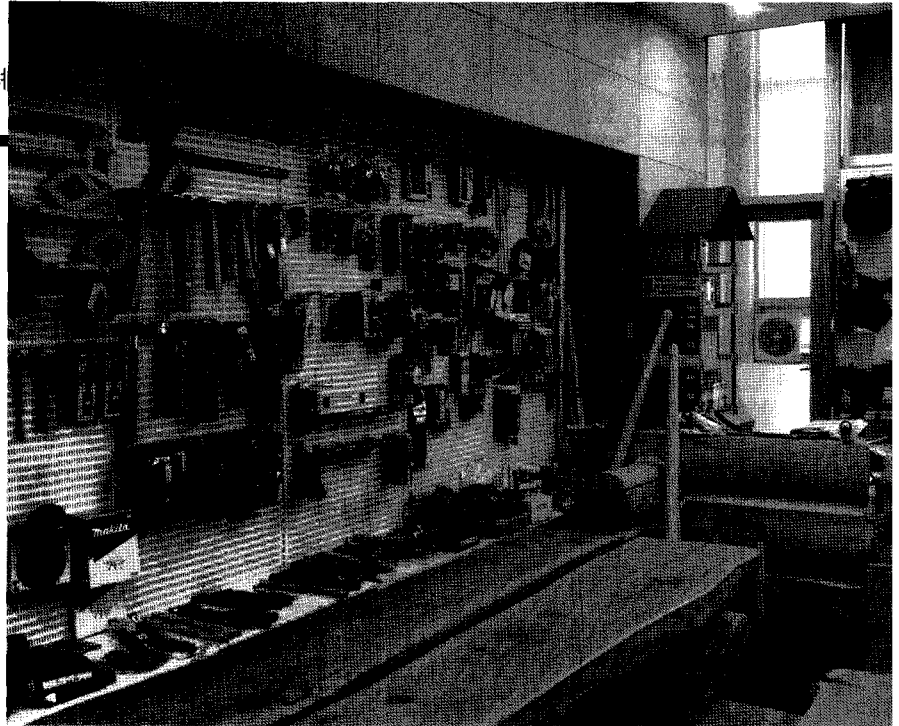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씨는 고개를 돌려 동료들을 보았다. 그들은 우비를 걸치고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문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보통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면 '자키'라는 공구를 이용해 차체를 들어 올린 뒤 타이어를 교체한다. 철도레일의 보수 또한 마찬가지다.

문씨와 동료들은 육중한 철도레일 보수용 자키를 가져와 휘어진 레일 밑에 끼웠다. 문씨가 자키를





작동시키자, 내부의 기어가 작동하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철도 레일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휘어진 선로를 곧게 편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는 일이었다.

문씨와 동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을 치워내고 허공으로 올라간 레일 아래로 들어갔다.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문씨는 그들의 얼굴 너머에 숨어있는 긴장을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문씨 역시 작업할 때는 항상 긴장으로 표정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키 때문이었다. 얼핏 보기엔 가늘고 긴 레일이지만 뼈 속까지沁뎅어리인 그것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레일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沁뎅어리를 지탱하고 있는 자키 하나였다.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절벽 오르는 사람이나 철도를 보수하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처지였다.

다행히도 레일 보수작업은 무사히 끝났다. 문씨가 철수를 지시하자 동료들이 하나, 둘씩 레일 밑에서 몸을 빼냈다.

그런데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 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막 레일에서 벗어나던 문씨의 발걸음이 순간 멈추었다. 한줄기 땀이 그의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문씨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부러진 곳도, 찢어진 곳도 없었다.

문씨가 고개를 돌리자 철도 레일에 손이 끼인 채 발버둥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삼십대 초반의 인부였다. 문씨는 얼마 전 술자리에서 막 육 개월이 지난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싱글벙글 웃음을 짓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누군가 사람들이 모두 피했다고 생각해 자키를 작동시켰거나, 혹은 제멋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어찌됐던 자키는 순식간에 레일을 지탱하고 있던 힘을 뺏고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철도를 가린 높은 방음벽 아래, 문씨는 우두커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얼마 전 다친 인부와 비슷한 또래의 사내가 팔을 걷어붙인 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는 뭐. 장애인 3급 판정 받았네. 보조금이 얼마라더라...”

문씨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철도 보수업에 뛰어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손자 재롱 볼 나이가 되었다. 이제 그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러던 차에 터진 사고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일을 그만 둘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자기네들, 자키는 안 만드나?”

문씨 옆의 사내는 엘더스T&L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철도와 관련된 각종 부품과 수리, 보수 공구를 만들고 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보니 50억대 매출도 올리기 힘든 작은 회사이다.

철도 분야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의사소통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의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철도 보수 현장을 찾아,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내 또한 현장 조사차 철도를 찾은 참이었다.

“사람 잡는 자키 말고, 사람 살리는 자키 한번 만들어 봐.”

문씨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 넣었다. 제대로 된 자키.

### 사람을 살리는 자키

회사로 돌아온 사내는 직원에게 문씨의 의견을 전했다. 기존의 기어식 자키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높낮이 조절이 용의하지 않아 갑자기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레일을 지탱하던 힘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되면 손이 잘린 인부의 경우처럼,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레일에 깔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겼다.

엘더스T&L 직원들은 기존의 자키를 개량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보자는 사내의 의견에 공감했다.

철도 공구 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협소했다. 작은 밥그릇을 놓고 몇 개 안되는 업체가 다투는 구도였고,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이나 공격적인 방식의 회사 경영은 힘들었다.

유일한 방법은 아이디어였다. 소규모 생산이라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독특하고 효율적인 공구를 개발해 낸다면 쓸쓸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자키를 개량하자는 의견은 관찮은 아이디어였다. 그동안 철도업계에서는 관행처럼 기어식 자키를 사용할 뿐 그것은 안전하게 다시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엘더스T&L은 대다수의 철도 공구 회사들이 그렇듯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기술영업, 엔지니어링, 수리 보수...

업무에 따라 부서가 나누어져 있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분 없이 함께 업무를 진행해 나갔다.

새로운 자키의 개발 또한 전 직원의 참여와 함께 시작되었다. 기어식 자키를 개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기존의 육중한 자키보다 가벼우면서도 안전한 자키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재질에서부터 레일을 들어 올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새로 고려해야 했다.

직원들은 수많은 토론을 거쳐 기어식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구조를 유압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렇게 새로운 발상의 물꼬가 트이자 곳곳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새로운 자키에 대한 디자인이 끝나고 이제는 실제로 제작을 해야 할 차례였다. 그러나 공구 제작, 판매에만 몰두했던 엘더스T&L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유압식 자키는 기존의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이었고, 공학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감수와 조인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인하대 선박해양공학과의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다. 선박해양공학과는 조선 분야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과로, 다방면의 공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엘더스T&L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철저한 구조해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마침내 세밀한 도면을 만들어 냈다.

이제 장치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 아웃소싱 업체들을 정하고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시급했다. 그러나 업체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새로운 자키의 원료는, 기존 제품이 사용하던 강철이 아닌 알루미늄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알루미늄 제련 업체들은 얇은 두께만 만들어 봤을 뿐, 철도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육중한 두께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포메탈이라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직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제련업체와 달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엘더스T&L이 원하는 두께의 알루미늄을 만들어 냈다. 아웃소싱 업체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도전. 새로운 자키를 만드는 일은 여러모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무시무시한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는, 더욱 더 무시무시한 쇳덩어리가 기어식 자키였다. 그런데 그 중추가 되는 기어라는 방식을 압력으로 대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압력만으로 무거운 레일을 들어올리기 위해 엘더스T&L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실험했다. 그렇게 치열한 과정 속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 2006년, 엘더스T&L의 새로운 유압식 자키는 이 이름으로 무난히 특허출원에 성공했다. 새로운 자키의 성능은 기존의 것을 대체할 만큼 완전했고, 안전성은 압도적으로 뛰어났다.

마침내 이 제품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원하는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엘더스T&L은 이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매출액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2007년 22억 원을 기록한 매출은 2009년 58억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자키를 작동시키면 레일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고, 천천히 내려온다. 더 이상 그 밑에 깔려 자신의 몸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내는 2년 전, 문씨를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 근심으로 움푹 패인 문씨의 표정은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 생생하게 틀어박혀 있었다. 사내는 앞으로 철도 보수 현장에서 만나게 될 인부들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세계로 뻗어나가며

엘더스T&L은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 말고도 부러진 레일 사이를 빠른 시간 안에 이어주는 응급 이음매, 레일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 등을 개발했다. 모두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원 재료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 훨씬 좋은 성능으로 개량해 냈다.

좁고 치열한 철도 공구 시장에서 엘더스T&L이 온전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끊임 없는 도전과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도구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 또한, 밝고 희망적으로 바꾸었다.

지금, 엘더스T&L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철도레일 보수용 유압식 잭은 이미 대만에 진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용기를 얻은 그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전 세계에 소개할만한 유통망을 가진 협력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세계 각지의 철도와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엘더스T&L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2011. 9 |

